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플렉트그룹 HVAC 생산라인 ‘첫 삽’

〈냉난방공조〉

노태문 DX부문 대표 등 착공식 참석
약 2400억 투자… 2028년 가동 목표
광주사업장 첨단제조거점 육성 계획

삼성전자가 광주에 240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냉각·공조 장비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지난해 15억유로에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생산망을 한국까지 확대하며 빠르게 커지는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주사업장에서 플렉트그룹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대표이사 사장과 토비아스 케텔레 플렉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1800㎡(약 6600평)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2028년 초 가동이 목표다. 플렉트그룹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운영해 온 14개 생산거점에 이은 15번째 글로벌 생산기지다.

광주 생산라인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배터리 공장, 대형 상업시설에 들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캠퍼스 신공장 부지에서 삼성전자-플렉트그룹코리아 광주공장 착공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시삽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비아스 케텔레(Tobias Ketterle) 플렉트그룹 CFO,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어가는 냉각·중앙공조 장비를 생산한다. 냉각수 분배장치(CDU)를 비롯해 팬 윌 유닛(FWU), 컴퓨터를 공기 처리 장치(CRAH), 대형 건축물용 공기조화기(AHU)가 주요 제품이다.

특히 CDU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수요가 커지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장비다. 건물의 냉방 설비인 질러와 서버를 직접 식하는 콜드 플레이트 사이에서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한다. 고성능 AI 서버의 발열량이 커지면서 기존 공기

냉각을 보완하는 액체 냉각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는 공조 수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냉각 설비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에 활용되는 고성능 서버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소모가 큰 고성능 서버가 늘수록 발생하는 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냉각 설비도 더 필요해진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15억 유로를 들여 플렉트그룹을 인수하며 대형 중앙공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00년 이상 공조 사업을 해온 플렉트그룹은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등 대형 시설용 중앙공조에 강점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그룹의 중앙공조

기술에 기업간거래(B2B) 통합 제어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 등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HVAC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생산기지도 늘리고 있다. 플렉트그룹은 지난달 인도 마하리슈트라주 푸네에 연간 최대 약 6500대의 공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열었다.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주 생산라인은 한국과 동아시아 수요를 맡는다.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1989년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AI 가전과 HVAC을 함께 생산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플렉트그룹 신규 생산라인 착공은 회사의 핵심 성장동력인 HVAC 사업의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사업장을 AI 가전과 차세대 HVAC 솔루션을 함께 생산하는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최태원 “AI와 사회적 가치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성장 있어”

〈대한상의 회장〉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AI로 복잡한 사회문제 해법 모색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고 해결 성과에 보상을 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최사에서 “AI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성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이 더터지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업이 이익을 내 세금을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AI로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비용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 회장은 “고령화 자체보다 고령화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이 어렵다”며 “AI를 활용해 문제가 어떻게 형성됐고 다른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분석한 뒤 해결 순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분석한 결과를 실제 해결로 이어

가는 역할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는 현상을 알려줄 수 있지만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에 다가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해 보상과 투자로 연결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사례로 들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금액으로 측정해 보상한 결과 참여 기업 470여곳이 5400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보상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약 35% 성장했다.

그는 “성과를 측정하니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기업이 벌어들인 돈만 셀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도 금액으로 환산해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를 함께 측정하면 기업은 돈을 벌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리더스서밋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AI를 활용한 통계,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자본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정부, 금융, 사회적 경제 영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각자가 보유한 경험과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함께 모여 더 큰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문제를 넘어 해결로’를 주제로 22일까지 열린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르게다꿈’ 캠페인 전개

LGE닷컴 대국민 인지도 제고

LG전자가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에 새로운 광고 캠페인 ‘르게다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지난 18일 ‘르게다꿈’ 캠페인을 운에어했다고 21일 밝혔다. 르게다꿈은 LGE닷컴을 고객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문 ‘L-G-E-dot-C-O-M’을 색다르게 읽어 표현한 이름이다.

LGE닷컴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광고 캠페인으로, 캠페인 영상에서는 남모르게,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기 위한 파인 리빙 플랫폼(Fine Living Platform) 르게다꿈을 부드럽고 나직한 톤으로 반복 소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LGE닷컴의 차별화 포인트는 고객에게 ▲나만 알고 싶은 가전 셀렉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한정판과 한정 혜택 ▲가전과 가구의 완성도 높은 페어링을 제안, 감도 높은 공간을 완성시켜주는 파인 리빙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캠페인 운에어에 맞춰 LGE닷컴에서는 ‘남다르게 세일’이 펼쳐진다. 내달 18일까지 ‘남다르게 100만원 가전 쿠폰팩’을 가입 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며, 가전 외 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 등 홈스타일 제품은 첫 구매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전·가구 특가전도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남모르게! 위클리 추천 세일’, ‘남다르게 릴레이 브랜드 워크’ 등을 통해 가전 제품 약 170종과 90여 개 홈스타일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특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E닷컴 내에서 ‘르게 미션’ 경품 이벤트도 열리며, LGE닷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르게다꿈 챌린지’도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큐셀-포스코, 영농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 ‘맞손’

국내 기업 ‘신토불이 얼라이언스’ 구성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과 하부 구조물을 공동 개발하고 금융·시공·전력 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지난 17일 포스코와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과 하부 구조물 패키지를 공동으로 개발

해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금융과 기자재, 시공, 전력 판매까지 연계한 통합 솔루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같은 농지에서 병행하는 방식이다. 모듈의 배치와 각도를 조절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하면서 남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가에 추가 수익을 제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국내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사용 기간 제약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다. 통상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기존 농지법에 따라 8년 만에 철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기간이 최장 23년으로 늘어나면서 장기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한화큐셀과 포스코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고효율 영농형태양광 전용 모듈을 생산해 공급한다. 태양광 사업 경험과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공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연계하고 발전소 준공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의 전력구매계약(PPA) 중개도 지원한다.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을 비롯한 전력 판매 솔루션도 제공한다.

포스코는 토지 부식에 강하고 국내 영농 환경에 적합한 하부 구조물 자체를 공급한다. 농작물과 농지를 보호하면서 영농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물을 개발해 국내 영농형태양광 구조물의 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